

[ 바둑 ]

‘환생한 돌부처나’ ‘겨울잠 깬 독사나’

이창호·최철한, 긴 슬럼프 떨치고 응씨배 결승 진출

이세돌·류성 각각 2-0 꺾어...한국, 5번째 우승 확정



〈이창호 9단〉

4년마다 열리는 바둑 월드컵인 제6회 응씨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가 한국의 안방산치기였다. 이창호·최철한 9단이 이 대회 결승에서 맞붙기 때문이다. 이창호는 지난달 25일 태국 방콕 수코타이 호텔에서 열린 이 대회 준결승 3번기 제2국에서 이세돌을 상대로 295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다. 인터뷰를 할 때마다 “이세돌을 겁나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던 이창호의 각오가 여실히 드러난 한 판 승부였다. 이창호 특유의 두터움이 완승을 이끌어냈다. 박빙의 승부를 예상했지만 이창호는 초반부터 적극적인 수를 쓰며 승기를 잡았고, 끝

까지 세력을 두텁게 지켜내어 승리를 굳혔다. 이세돌 또한 특별한 실수가 없었는데 전성기를 방불케하는 이창호의 능숙한 수읽기와 형세 판단을 따르지는 못했다. 준결승에서 파죽의 2연승을 달린 이창호는 8년 만에 응씨배 결승에 진출하게 됐다. 현재 세계 타이틀로는 중한배 1개만을 보유하고 있는 이창호는 3년여만에 메이저 세계 타이틀에 도전하게 됐다. 또 이날 승리로 이세돌과의 상대 전적에서도 26승19패로 차이를 벌였다. 제한시간 3시간30분으로 비교적 장국대국인 응씨배가 다소 이창호에게 유리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응씨배 경험 면에서 상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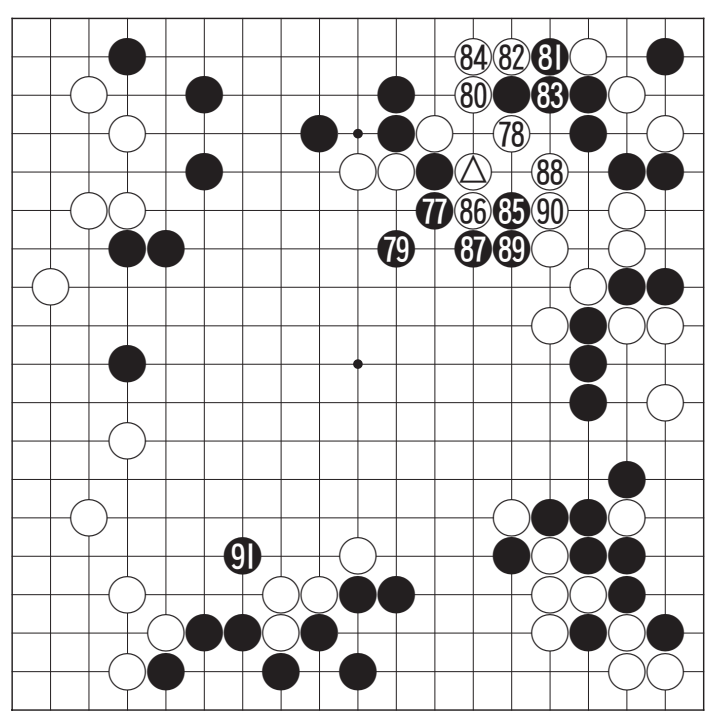
적 우위였던 것이 승인이었다는 것이다. 이세돌은 이날 패배로 조현현, 서봉수, 유창혁, 이창호등 한국이 낳은 불세출의 스타들이 등극한다는 응씨배 왕좌 도전을 다음으로 미루게 됐다. 최철한 9단은 연이어 승진보를 전했다. 최철한은 같은 날 열린 준결승에서 중국의 류성 7단을 꺾었다. 철저한 실리 작전을 펼쳐 중앙의 대미를 잡는 통쾌한 승리였다. 이로써 응씨배 결승은 이창호와 최철한의 5번기로 확정됐다. 한국은 최근 벌어진 춘란배, 후지쓰배, 도요타 덴소배 등 3개의 세계대회에서 중국에 크게 밀렸고, 특히 도요타 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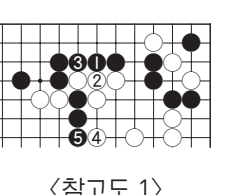
〈최철한 9단〉

소배에선 중국기사들에게 가로막혀 4강에 한 명도 들지 못하는 치욕을 당했다. 이번 응씨배의 선전으로 중국의 맹추격을 따돌리고 한숨을 돌리게 된 셈이다. 응씨배 우승 상금은 국제기전 중 최고인 40만달러(약 4억6000만원)이다. 1회부터 4회까지 조현현, 서봉수, 유창혁, 이창호가 차례로 우승해 한국 기사들과 특별한 인연을 맺었고 5회 때만 창호9단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결승 일정은 정확하게 발표된 것임에도, 내년 1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결승전은 5전3선승제로 펼쳐진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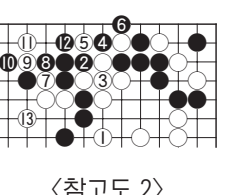
제2회 광주바둑협회장배 '아까운 뒷맛' 6보 (77~91) 아마최강부 결승 白 선계성 6단 黑 심재욱 6단



그러면 백은 4로 두는 정도인데 흑 5로 밀어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 그런데 하면 백 84도 조금 욕심이었다. 선계성 6단은 귀의 뒷맛이 아까워 강력하게 84로 이었으나 이 수로는 '참고도2'의 1로 뛰어들어 두는 것이 무난했다. 흑이 4로 끊어 잡으면 백 7로 나가 9로 끊어두고 13로 탈출하여 싸울만한 모양이다. 백 90까지의 결과는 집으로는 백이 이득을 보았으나 흑 91의 요소로 달걀가 흑이 활발한 국면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참고도 1〉



〈참고도 2〉

명지대 개교 60주년 '바둑축제'



지난달 30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바둑 축제에서 한 외국인이 바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명지대학교 개교 6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바둑축제는 바둑학과 출신 기사들의 바둑 지도 등 다채롭게 펼쳐졌다. <명지대학교 제공>



이세돌 독주 언제까지...

작년 11월부터 12개월 연속 한국랭킹 1위

이세돌 9단의 독주가 12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한국기원이 3일 발표한 국내 프로기사 랭킹에서 이세돌이 1위를 차지했다. 그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 5승5패의 성적으로 총점 235점이 하락했지만 총점 1만4천548점을 따낸 이창호 9단(1만4천234점)을 따돌리고 1위 자리를 지켰다. <표 참고> 이로써 이세돌은 지난해 11월부터 12개월 연속 랭킹 1위에 올라 이창호가 보유하고 있던 12개월 연속 랭킹 1위 기록(2006년 2월~2007년 1월)과 동률을 이뤘다. 이세돌은 한때 이창호에 2천여점 앞서며 독주했지만 최근 승률이 저조해 1~2위 자리가 뒤바뀔 가능성이 크다. 이창호는 지난달 제6회 응씨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준결승전에서 이세돌과 맞대결해 완승을 거뒀다.

또 제13회 삼성화재배 세계바둑오픈대회 8강전에 진출하는 등 올해에만 53승 14패(79.1%)의 성적으로 다승 1위, 승률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랭킹 10위권 내에선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박영훈 9단을 밀어내고 강동윤 8단이 2계단 오른 4위를 차지했다. 강동윤은 지난달 5전 3승을 거두며 144점 오른 1만2천58점으로 랭킹 발표 후 자신의 최고 순위를 기록하게 됐다. 또 제6회 응씨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준결승전에서 류성 7단을 꺾고 결승에 진출한 최철한 9단은 지난해 12월 랭킹(6위) 이후 처음으로 10위권에 재진입했다. 이밖에 36위 이현호 초단과 73위 박지은 9단이 초단과 여자기사 중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지난 2005년 8월 처음 시행된 한국기원 프로기사랭킹제는 매달 1일 발

2008년 10월 한국 랭킹 순위

Table with 3 columns: 순위, 기사명, 랭킹 점수. Lists top 10 Go players and their scores.

표낸다. 산정일로부터 과거 1년간의 성적을 집계해 대국 횟수 점수, 기전 가중치, 기전 인정률에 따라 점수를 매겨 랭킹 50위까지 발표된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반상의 소크라테스 문웅직 5단 전격 은퇴

'반상의 소크라테스' 문웅직 5단이 지난달 30일 전격 은퇴를 발표했다. 경북 김천 태생인 문웅직은 지난 1983년에 입단해 25년간 프로기사로 활동했다. 지난 2003년 5단으로 승단했으며, 1988년에 제3기 신왕전에서

박용철 3단(당시)을 누르고 우승했다. 또 조현현 9단과 제5기 박카스배 우승컵을 다투 준우승을 거뒀고, 제6기 대왕전, 1991년 제10기 KBS바둑왕전, 1992년 제36기 국수전 등 대회

의 본선에 진출한 경력이 있다. 프로 통산 성적은 318승346패. 서울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아 국내 유일의 박사 프로기사로 불렸던 문웅직은 국내 대학에서 한국정치론, 정당론, 정치통계학 등을 강의했고, 10여 편의 논문도 발표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강유택 2단, 이현호 초단 꺾고 국수전 4강 선착

강유택 2단이 제52기 국수전 본선토너먼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강유택은 지난달 30일 한국기원 본선대국실에서 열린 이 대회 8강에서 이현호 초단을 상대로 241수 끝에 불계승을 거두고 가장 먼저 4강에 올랐다. 지난 2007년에 입단한 강유택은 입단하자마자 2008한국바둑리그, 박카스배 천원전, 오스람

코리아배 등 각종 기전에서 선전하고 있다. 올해 43승12패를 올리며 다승 랭킹 4위에 올라있다. 이 대회는 총 상금 2억5천만원이며, 각자 3시간에 60초 초읽기 5회의 제한시간이 주어진다. 4강 진출자는 차기 대회 본선 시드가 부여되며 우승 상금은 4천500만원.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Daehung, Sangwul, and A+ agencies, including listings for properties, land, and commercial spaces.